

연중 제11주일

열두 사도를 파전하시다

(마태 9,36-10,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새로 온 사람 소개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36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38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10,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낄 때, 이는 주님의 어떤 초대일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전능(全能)이나 전지(全知)로 일하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인간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입니다. 성녀는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인 사랑의 선교회가 하는 일을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견주었고, 스스로를 ‘주님께서 쓰시는 몽당연필’에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도 그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당신의 일을 펼치셨습니다. 희미하고 여리고 때로는 엉뚱하기만 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6. 월례회 : 안건토의와 공지사항 전달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